

## 원자력 기술과 산업의 일류 도약 원년으로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

국민들의 지지와 합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과 산업이  
비약적으로 도약한  
2007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해 나갑시다.

”

**존** 경하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준호 회장님, 한국원자력학회 김시환 회장님, 미국원자력학회 한국지회 조남진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원자력계 전문가 및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해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원자력계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희망찬 정해년(丁亥年)을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원자력 기술이 에너지 공급을 넘어 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 분야로 크게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원자력계는 지난해 많은 발전을 이룩

하였습니다.

연구 개발 부문에서는 순수 국내 기술로 30MeV (메가 일렉트론 볼트) 사이클로트론 제작(원자력의학원), 고준위 폐기물 지하 처분 연구 시설 구축(원자력연구소), 양성자 빔을 이용한 흑연 영구자석의 원리 규명(고려대) 등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방사성 동위원소 관련 기술을 시리아와 카자흐스탄에 각각 수출(삼영 유니텍)하였고, 일본·미국과 핵연료의 안전성 평가 시험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체결(원자력연구소)하는 등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확실한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원자력 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의 규제 제도와 기술이 높이 평가받아 원자력 안전 선진국 클럽인 국제원자력안전규제자협의회(INRA)에 정식으로 가입(2006. 3)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장은 원자력 기술 개발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여러분의 노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그리고 원자력계 관계자 여러분!

올해는『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과『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이 시행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원자력 이용 확대를 통한 산업 발전, 인력 양성 및 국제 협력 강화, 그리고 원자력 안전과 방사선 관리 및 원자력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각종 시책을 꾸준히 추

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북한 핵실험과 관련하여 주변국의 핵활동 탐지·평가 능력을 강화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투명성 확대 노력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자원의 활용 효율 제고와 전략 노형의 수출 등 원자력 기술의 수출과 국제 협력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20여 년 간의 원자력 기술 개발과 원자력 산업 육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과학기술부가 출범한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자 IAEA와 협력협정을 체결한 지 50주년이 되는 매우 의미 있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금년이 원자력 기술과 산업이 세계 일류로 도약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한해로 기억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국민들의 지지와 합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과 산업이 비약적으로 도약한 2007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신년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과 원자력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큰 성취와 발전이 함께하는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